

굴욕의 성적 KIA 뜨거운 팬심



8위 성적에도 홈 관중 62만7539명... 전년비 42% 늘어

홈 7번·원정 11차례 매진...9개 구단중 '티켓파워' 1위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호랑이 군단'의 성적은 한없이 부족했다. 프로야구는 지난 14일 역대 3번째 최소경기수인 525경기만에 605만6243명의 누적관중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600만 관중 흥행을 이어갔다. 2014시즌 흥행의 중심에는 열정적인 KIA팬들이 있었다.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55경기에 62만7539명의 관중이 다녀갔다. 지난 시즌 44만1408명에 비해 무려 42%가 증가한 수치로 관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평균 관중도 8026명에서 1만1410명으로 경종 뛰어올랐다.

만원 관중인 2만2000명이 자리를 가득 채운 경기는 7번. 지난해 무등경기장 만원 관중(1만2500석)을 넘어선 경기도 17번에 달한다.

원정에서도 KIA 팬들의 응원열기는 뜨거웠다. 지난 6월 6·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와 LG의 잠실경기가 이를 연속 만원 사례(2만6000명)를 이루는 등 KIA는 원정경기에서 9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1차례 매진을 기록하면서 티켓파워를 과시했다. 타지역의 KIA 팬들은 티켓 예매 전쟁을 벌이며 원정 경기를 기다렸다.

후반기 성적하락 속에서도 팬들의 발길은

부지런히 이어졌다. 7월 무더위와 8월 계속된 비에도 후반기 15경기에 14만69명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경기당 평균 9337명이 경기장을 다녀갔다.

그러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도 KIA의 성적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49승66패로 0.426의 승률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8위로 아시아 연개임 휴식기를 맞았다.

홈 성적은 더 좋지 못했다. 안방에서 22승33패를 수확하며 홈 승률은 0.400에 머물렀다. 3연전으로 진행된 13번의 시리즈에서 워닝 시리즈를 가져온 경우는 단 세 차례에 불과했다.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삼성

과의 경기에서는 안방에서 싸움이 패를 당하기도 했다.

내용도 좋지 못했다. 4월1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8-20으로 지면서 팀 경기 최다 실점 및 최다 피안타 타이 기록을 세운 KIA는 4월29일 SK에 5-18, 5월5일 넥센에 8-16으로 대패를 당하는 등 12번이나 두 자릿수 실점을 하는 졸전 끝에 패를 쌓았다.

차라한 성적에도 자리를 지켜주는 팬들을 향한 선수단의 형식적인 인사가 논란이 되기도 하는 등 팬서비스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KIA는 10월1일 두산과의 3연전을 시작으로 잔여경기 일정을 치르며 된다. 전체 13경기 중 9경기가 홈경기로 치러진다. 새 집에서 맞은 첫 해, KIA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플레이와 팬서비스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전전 무승 탈출 '사활'

K리그 챌린지... 광주 FC, 오늘 원정경기

광주 FC가 '대전전 무승 탈출'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17일 오후 7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챌린지 27라운드 대전 시티즌과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대전 앞에 서면 작아지는 광주였다. 광주는 대전과의 승부에서 2무5패를 기록하며 무승 부진에 빠져있다.

1위 독주중인 대전은 최근 9경기에서 5승4무를 기록하면서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지난 고양과의 경기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고도 골 결정력 부족으로 1-1 무승부에 그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바쁘다.

난적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승부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극적인 반전카드가 될 수 있다.

광주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문제는 마지막 한방이었다. 대전과의 올 시즌 두 차례 대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서 대전 장원석과 정석민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된 만큼 광주가 파비오·김민수·김호남 등 빠른 공격수들을 앞세워 빈틈을 공략해야 한다.

절치부심 원정길에 오르는 광주가 과감한 돌파와 슈팅으로 대전전 무승 사슬 끊기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즌 복귀 불투명

류현진, 어깨 염증 진단

드 복귀까지 24일이 걸렸다.

다저스는 9월 29일 정규시즌 일정이 끝난다. 류현진이 5월에 보인 재활속도라면 더는 정규시즌 등판이 불가능하다. 다저스가 내세울 닐리크 서부지구 1위를 빨리 확정한다면 9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어깨 통증을 느낀 류현진이 무리해서 복귀할 필요도 없다. 현지 언론은 류현진의 정규시즌 등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매팅리 감독은 "MRI 검사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류현진이 며칠 휴식을 취하고 나서 시카고에서 재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우승을 확정하면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류현진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면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팀 성적에 따라 류현진의 복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김효주-김세영 샷대결

내일부터 KLPGA 챔피언십



미국프로여자골프(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19·롯데·사진)가 승 돌릴 틈도 없이 국내 무대로 복귀한다.

한국시간으로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우승 시상대에 오른 김효주는 18일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메트로리프·한국경제 제36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우승상금 1억4000만원)에 참가하기 위해 곧바로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 골프장으로 향한다.

김효주는 역대 KLPGA 한 시즌 최다 상금인 8억원을 돌파했지만, 아직 다승왕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효주는 올 시즌 3승을 올렸지만 다승 부문에서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다.

김효주가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정민(22·비씨카드)이 YTN·볼빅여자오픈에서 우승,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역전의 여왕' 김세영(21·미래에셋)도 이번 대회에서 시즌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김세영은 지난해 KLPGA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와 이정민, 김세영은 올해 대회 1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돼 샷대결을 벌인다.

여기에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김효주와 우승 경쟁을 벌였던 장하나(22·비씨카드)와 '슈퍼투어' 백규정(19·CJ오쇼핑)도 가세, 시즌 3승에 도전하면서 다승왕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김효주의 가장 큰 적은 프랑스에서 돌아와 곧바로 대회에 참가하느라 쌓인 피로다. 김효주가 힘든 상황을 딛고 국내에서 또 하나의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